

'올해 다양한 공연·전시 보러'

문체부,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 운영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발레·체험전시 등 기획프로그램 추진

군산예술의전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총출발 방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기획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클립트의 황금빛 비밀'의 온라인 전시관을 진행하며 임시 휴관시에도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이밖에도 공연 6건 전시 2건 교육사업 1건을 운영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갔다.

올해 기획프로그램은 코로나 블루 극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뮤지컬, 발레, 체험전시 등(15회) 기획공연·전시를 추진한다.

3월 첫 기획공연으로는 대한민국 난버널 퍼포먼스 NO.1으로 불리는 '웅알스'를 대공연장에 올릴 예정이다. '웅알스'는 베를린 코미디를 포함해 저글링, 마임, 비트박스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4월에는 작년 코로나19로 취소돼 많은 관객들이 아쉬워했던 유니버설 발레단의 대작 '돌키호레'를 올릴 예정이다.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도립국악원의 대표 레파토리 공연 '국악콘서트 락'을 준비해



군산예술의전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총출발 방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며 6월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흥겨운 갈라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역예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공연과 대형 뮤지컬공연 및 송년 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골라 볼 수 있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적극적인 국비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는 감상교육 등에 응모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관광유형 분석 제공

정부가 관광업계를 위해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해,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 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

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는 누리집(https://datalab.visitkorea.or.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다양한 관광유형 분석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뉴시스

예비·초기 여성창업자 프리마켓 참가자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프리마켓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프리마켓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로비에 무상으로 제공된 판매 공간으로, 수공예 제품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판로가 여의치 않은 예비 여성창업자들에게 판매의 장을 마련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리마켓 참가자 모집은 3월 초 입주할 예정으로, 도내 거주하고 수공예 제품을 창작하는 예비 및 3년 미만 초기 여성 창업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jwwomen@naver.com)을 통해 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은 열정적인 참여의지와 창의적인 아이템, 스토리가 있는 수공예품, 구매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적절한 가격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확정해 26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이윤애 센터장은 "2019년부터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에게 창업 프리마켓 공간을 지원해 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확보의 기회가 줄어들며, 단순 판매장이 아닌 소비자 구매욕구, 반응 등 시장분석을 통한 아이템 개발 및 확장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wcre.kr)나 취업지원팀(063-254-3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북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작 영화 '간이역' 18일 개봉

남원 주요 배경으로 촬영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20 전북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작인 영화 '간이역'이 오는 18일 개봉한다.

영화 '간이역'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승현(김동준)'과 위안이 재발하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아(김재경)'의 애절한 사랑을 그려낸 감성 멜로 영화로,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인 김동준과 '레인보우'의 김재경이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간이역'은 전체 20회차 중 9회차를 남원에서 촬영했다. 남원의 (구)서도역은 이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화제가 된 촬영지로, '간이역'에서는 승현과 지아가 우연히 재회해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남원의 컨스틴 리조트, 승화원, 모던 카페 등 곳곳에서 촬영했다.

'전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내 로케이션 촬영 시 제작비의 지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월경 공고를 시작으로 작품을 모집, 지원할 예정이다.



서로의 삶에 녹아든 두 사람의 사랑과 그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간이역'은 코로나로 지친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부터 전국 69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하고, 전주에서는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안 및 영화관 이용 제한 완화에 따라 영화 관람 시 동반 일행과 옆자리에 착석 가능하고, 다른 일행과는 한 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장은성기자

전주한벽문화관,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전주한벽문화관의 '오! 난 토끼 아니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사업은 코카카(K&CACA)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문예회관에서 기획·제작 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오! 난 토끼 아니오'는 총 3,0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오! 난 토끼 아니오'는 전주한벽문화관에서 2021년 초연하는 작품으로 판소리 음악극 '적벽'으로 유명한 정호봉 연출가가 작품을 맡았다. 정호봉 연출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연희예술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면서 정동극장의 '적벽', 국립국악원의 '까마논의 왕' 등 바려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연출가다.

이번 '오! 난 토끼 아니오'는 익숙한 수궁가의 줄거리에 대한 시민의 작품 연출법을 엮어 해악과 풍자를 더한 서사극이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 경 총 5회 실연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